

# ideal

08  
2002 No. 120

ideal architecture / 이상건축  
monthly review of architecture



이상건축 08월호 80  
02 08 07  
2000 7722 0008  
1049 명문사(주) 편집부  
서울역한양문고 312-3478

## 아시아와 유럽의 젊은 건축인들의 대화

- 젊은 건축가 모임(YEA-Architects)과 함께 떠나는 오스트리아의 젊은 건축 답사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건축계를 잇는 젊은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의 진원지는 오스트리아.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수학하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2, 30대 젊은 건축인들과 오스트리아의 학생들이 유럽과 아시아의 젊은 건축가들의 만남이라는 기획 아래 그 첫번째로 오스트리아와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이 만나는 답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화제이다.

금번 행사를 이끌고 있는 이들 모임의 이름은 'YEA-Architects.' 'Young European Asian Architects'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젊은 건축가 모임'으로 불리고 있다.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2명을 포함 총 9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지난 2001년에 결성되었다. 7개국에서 모인 이들은 그간 여러 차례의 집회를 통해서 창조적인 건축 활동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의 젊은 건축가들의 활동을 돕고 교류를 통해서 서로 배워가며 차차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등 여러 행사를 함께 계획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대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첫 프로그램으로서 금번 건축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것이다.

이 행사는 유럽에서 인정받고 있는 차세대 건축인들과 아시아의 젊은 건축인들이 함께 만나게 되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금번에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젊은 건축인들이 주축을 이룬다. 주제는 '주거- 새로운 정신(New Spirits- Housing)'

주거는 건축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인터넷 등의 보급에 따라 새로운 관계와 삶의 형태가 형성되고 있는 현 시기 주거의 새로운 경향을 추구하고 있는 젊은 건축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시대의 삶의 시대상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의 차세대를 이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젊은 건축가 7팀을 선정했다. 콘 아키텍츠(Con: architects), 게르너 게르너 플러스(Gerner Gerner plus), 풀 아키텍츠(Pool-architects), 어벤피쉬 아키텍츠(urbanFish.architects), 베카카 드라이(BKK-3), 버스 아키텍츠(BUS-Architects), 크베어크라프트(Querkraft)가 그들로 대부분 1960년대 이후 출생인 건축가들로 구성된 팀들이다.

행사의 일정은 오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 7박 8일 동안 진행된다. 참가하는 유럽 건축가들의 대부분 오스트리아 인이라 건축물 답사와 각종 프로그램의 개최 장소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Wien, 비엔나)과 제2의 도시인 그라츠(Graz)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신선하다. 단순히 답사만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한 건축가들의 작품을 직접 방문, 감상하며 이후에 있을 토론회와 세미나 등 준비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축 프로젝트나 활동 계획에 대하여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등의 목적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의 자세한 내용은 젊은 건축가 모임 홈페이지

(www.yea-architects.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이 주축이 된 모임에서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실무적인 일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경비 등의 문제가 그리 수월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동분서주하며 각계에 금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을 해냄으로써 현재는 오스트리아 건축컨설팅 회사인 인 프로그레스(In Progress), 국립빈공과대학 건축연구소(TU-Wien Hochbau 1 Institut)에서 지속적인 후원 약속도 받아내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본지는 이 모임이 기초하고 금번 행사를 추진하는 데 앞장 선 이병훈(국립빈공과대학 건축학과) 씨와 접촉하여 젊은 건축가 모임과 금번 행사에 대한 대화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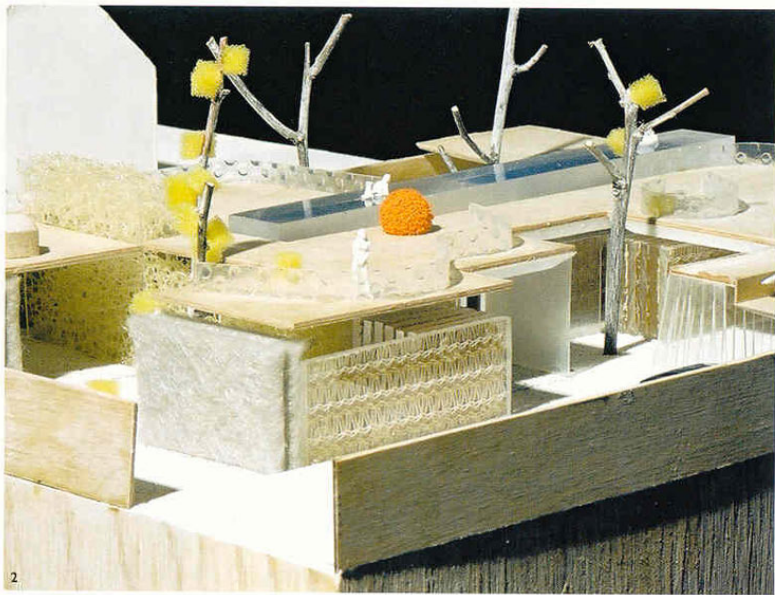
### ■ 우선 금번 행사를 기획한 '젊은 건축가 모임(YEA-architects)'는 어떠한 모임인가?

YEA-architects는 'Young European Asian Architects'의 약자이다. 몇몇 친구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 중에 건축과 미래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기로 하고 주위에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2001년, 7개국에서 온 9명이 오스트리아의 한국 식당에서 모이게 되었다. 이 모임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의 젊은 건축가들의 활동을 돕고 교류를 통해서 서로



1. 금번 행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젊은 건축가 모임(YEA-Architects)의 이병훈(위), 신창원(가운데), 공홍연(김희환 아래) 씨  
2. 콘 아키텍츠(Con: architects), (dive-in)  
3. 풀 아키텍츠(Pool-Architects), (in spe)  
4, 5. 게르너 게르너 플러스(Gerner Gerner plus), (Suedsee)



가 배워가고 차차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자는 계획에 뜻을 같이 하고,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관심이 있는 분야들을 나누었다. 그때가 정식적으로 일을 도모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멤버는 2명의 석사, 1명의 박사, 그리고 나머지 학부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직 회원 모집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본인을 포함하여 신창용, 공홍연(孔虹燕, 이상 국립반공과대학 건축학과) 씨 등 이번 행사를 직접 준비한 3명은 우리의 활동을 확대할 것이고, 멤버들을 더 모을 것이다.

■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던 중 서로 직접 만나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모든 나라의 젊은 건축가들이 만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한국(본인이 모임을 기초했고, 한국과의 워크숍을 도운 적이 있기 때문)을 처음으로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다. 차차 멤버들이 있는 나라들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과 일본과의 만남을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다.

국제 건축 사회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건축적 환경과 지위가 어떠한가?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종속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이 아시아를 끌러가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바로 이 시대의 새로운 건축을 말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마인드에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유럽의 건축을 배우고 싶은가? 아니다. 배우지 말고 자신에게서 끌어내자. 서양건축의 발전사에서 밭을 때자. 단절이다. 건축의 세제션(Seccession) 운동을 기억하는가? 세제션은 '분리'를 뜻한다. 즉, '단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제션 운동이 유겐트스틸(Jugend Stil)을 만들었다. 유겐트스틸은 영어로 'young style'을 뜻한다. 그 당시 젊은이들이—30대 초반—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문화 형태로서 자리매김을 했다.

이것이 젊은 건축가 모임을 시작하는 이유이다. 그것도 1세기 전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된 빈에서 시작하는 근거이다.

■ 행사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행사의 내용은 처음에는 1주일간의 건축 답사와 1주일간의 워크숍으로 계획을 했었다. 건축 답사를 통해서 접한 작품이 테마가 되고, 그 작품을 한 건축가가 직접 튜터로 워크숍에 참여해서 하나의 팀을 지도하게 함으로써, 테마로 잡은 내용을 참가자로 하여금 가장 잘 이해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 아직은 책이나 저널로 소개되지 않은 내용을, 새로운 움직임을, 참가자들은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세계 건축계에 합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건축 답사 부분만을 하게 되었다.

건축답사는 크게는 2가지로 나뉜다.

첫째, 1926년의 <칼 마르크스 호프(Karl Marx Hof)>에서 2001년 완공된 장 누벨(J. Nouvel), 빌헬름 홀츠바우어(W. Holzbauer), 쿵 힘멜블라우(Coop Himmelblau), 만프레드 베도른(M. Wehdorin)이 설계한 가스미터(Gasometer) 프로젝트까지의 공동주거의 변천사를 둘러본다. 둘째, 현재 이 시간의 건축을 둘러본다. 주거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형태와 시도의 내용을 설계한 건축가로부터 직접 자신의 건축물 앞에서 들어본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보여주고 박수치고 끝나는 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로가 관계를 쌓아갈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한다. 건축 답사에는 오스트리아 쪽 참가자도 모집했다. 국립반공과대학이 우리의 파트너가 되어서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다. 한국쪽 참가자도 거의 학생이나 학생들간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모든 젊은 건축인(학생부터 건축사까지)이 참여하는 모임을 만들어갈 것이다.

■ 지난 7월 15일 접수를 마감했다. 행사 참여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그리고 주위의 반응은 또 어떠한가?

한국의 반응은 그리 높지는 않았다. 예상하고 있었다. 이곳의 건축가의 작품들이 아직 한국에 소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1년 정도 뒤면 한국에도 여기 건축가들의 작품이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정보가 빨라야 하고 서로의 의사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유럽의 건축의 움직임이 있듯이 한국의 건축의 움직임을 말하고 싶다. 그것이 진정한 경쟁이고 파트너로서 일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다.

■ **첫번째 대상으로 오스트리아 건축가들을 선정했다. 이는 단지 기획자가 오스트리아에 거주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유럽 내에서 오스트리아 건축과 건축가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떠한가?**

건축가 리파엘 모네오(R. Moneo)가 그랬다. 현재의 건축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미국의 유기적인 형태의 건축과 스위스의 디테일, 그리고 네덜란드의 랜드스케이프적인 건축이 바로 그것이라고 그 말에 동감을 한다. 오스트리아의 젊은 건축가들은 랜드스케이프적인 건축과 디테일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세션 운동과 유겐트스틸이 일어난 곳인 만큼 아직도 새로운 시도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비엔나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건축 전시회와 건축 강연회가 있는 곳 중의 하나이며, 실제로 젊은 건축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곳이다. 심지어 20대 말의 건축가도 본 적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오스트리아의 랜드스케이프적이고 디테일한 젊은 건축가들을 지원한다고 생각한다.

■ **금번 행사에 대상이 된 7팀은 어떠한 배경과 근거로 선정하게 된 것인가? 그리고 젊은 건축가로 한정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오스트리아 내에서는 홍보를 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건축가 누구누구가 참여한다고 말하면 그 행사의 질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국내외의 설계경기에 당선됨으로써 그리고 국내외 건축상을 수상함으로써 실력을 이미 평가받았다. 유명세만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가마다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스타일이 벌써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대가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한국의 참가자들이 이 건축가들에게서 작품의 외형이 아니라 건축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건축을 어떻게 풀고 발전시켜나가는지 보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준비한 수고는 보상받는다. 더 자세한 것은 금번 행사의 리뷰를 통해서, 건축가들의 기획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이러한 행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젊은 건축가로 성장시키는 것이고 미래에 종속되지 않고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

게 하기 위함이고 서로가 자신의 건축을 보여주며 선의의 경쟁을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관계를 만들어간다. 목적을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를 더 중요시한다. 그 관계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다. 다만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우리가 할 것이다.

젊은 건축가들은 관계만으로도 서로 만날 수 있다. 돈과 정치에서 자유롭다. 건축의 본질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다. 매번 테마를 달리 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일 반적인 테마가 아니라 특별한 동시대적인(contemporary) 테마를 잡을 것이다. 그래야 건축이 갖고 있는 현재의 한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만드는 것이다.

■ **금번 행사는 주거에 있어서 '새로운 정신(New Spirits)'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이며, 이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교류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주택은 건축의 출발선이다. 주거는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건축가들이 어떻게 푸는 것인지, 건축가들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될 <칼 마르크스 호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삶을 반영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현재의 주거까지, 건축에는 인간의 삶이 녹아 있다. 건축에는 당시의 사회 구조와 시대 정신과 문화가 녹아 있



다. 그런 삶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주택이다. 1927년 독일의 슈트루트가르트에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오드(J. J. P. Oud), 피터 베렌스(P. Behrens), 마르트 슈탐(M. Stam), 빅터 부르주아(V. Bourgeois) 등의 건축가들이 공동주택단지를 계획했다. 이는 당시 모더니즘 주거건축의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삶을 정의한 셈이다. 그리고 193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아돌프 로스(A. Loos), 요셉 호프만(J. Hoffmann), 요셉 프랑크(J. Frank), 게르트 리트벨트(G. Rietveld) 등이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며 주거를 당시 시대정신인 모더니즘으로 해석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한다면 현재의 젊은 건축가들이 은연중에 표현하는 주거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주거 환경을 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면 미래 주거에 관한 제의도 가능할 것이다. 비엔나 시 관계자가 한 말이 생각난다. 오스트리아 건축가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주택을 짓지만 미국에서는 빌딩을 짓는다고 주거는 쉽지만 어렵다.

■ 금번 행사는 참여하는 건축가들과도 많은 교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번의 답사나 방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참가자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듯하다. 더불어 행사 이후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가능성이 어떻게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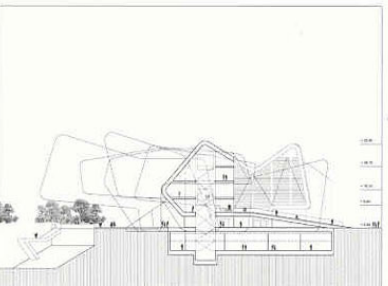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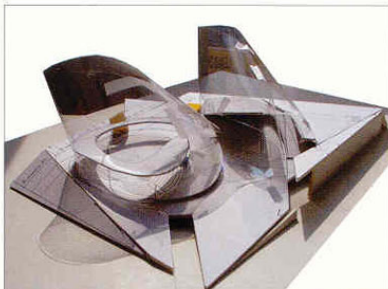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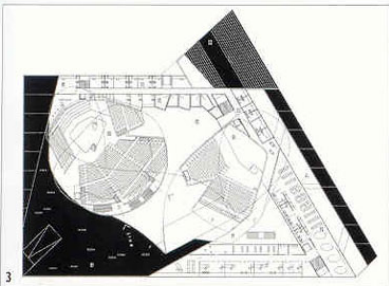
될지는 모르겠다. 젊은 건축가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랄 뿐이다. 같이 만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가들과 모여서 의견을 나눌 것이다. 관심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모임과 만남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신도 관심이 있는가'이다. '관심이 있으면 관심을 보여라, 함께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2003년 5월에 한국, 일본, 중국, 오스트리아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순회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젊은 건축가 모임은 대외적인 기획 행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건축인들이 동시대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가는 가운데 서로가 함께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의 국가들까지 확대하여 이러한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답사나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와 같은 여러 형태의 행사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기성 건축가들은 자신의 영향권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에 있어 그리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건축가들 내에는 모든 건축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한 곳에 집중시켜 독점적 형태로 가지고 가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 이병훈 씨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 편입되지 않은 젊은 건축인들이 새로운 교류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은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작품 세계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이번 행사에 대해 현지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건축저널인 <bauforum>에서 취재기로 했으며, 후원사인 인 프로그레스를 통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다른 저널들과도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본지도 금번 행사 이후 그 구체적인 성과와 내용을 중심으로 리뷰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 하는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자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조경재 기자 zerotext@hanmir.com)



1, 2. 버스 아키텍츠(BUS-Architects), (Compact City)  
3~4. 어반피쉬 아키텍츠(urbanFish.architects), (Kunshaus)  
5. 어반피쉬 아키텍츠, (Sarajevo Concert Hall)

